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 정도가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심미경^{1*}, 박정모²

¹신성대학교 간호학부, ²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Spirituality, Meaning in Life and Hospice Perception on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Mi-Kyung Sim^{1*}, Jeong-Mo Park²

¹Division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 임종간호 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임종간호 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P시와 H군에 소개하는 2개 대학의 3, 4학년 308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에 한해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WIN 14.0을 이용하여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임종간호 태도는 호스피스 인식($r=.30, p<.001$) 및 생의 의미($r=.30, p<.001$)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 인식($r=.25, p<.01$), 영성과 생의 의미($r=.53, p<.01$)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호스피스 인식($\beta=0.40, p<.001$)과 생의 의미($\beta=0.27, p<.001$)로 나타났다. 호스피스인식의 설명력은 22.7%, 생의 의미는 5%로 이 두 변수의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27.7%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간호 학생의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 인식을 포함한 임종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pirituality, perceived meaning in life, hospice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among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completed by 308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from April 11, 2017 to April 17,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a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4.0 program.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among nursi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ospice perception($r=0.30, p<0.001$) and meaning in life($r=0.30, p<0.001$).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ospice perception($r=0.25, p<0.01$) and spirituality($r=0.53, p<0.01$).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were hospice perception($\beta=0.40, p<0.001$) and meaning in life($\beta=0.27, p<0.001$). Hospice perception explained 22.7% and meaning in life explained 5.0% of the variance. These variables explained 27.7% of the variance in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terminal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hospice perception and meaning in life,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terminal care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 Attitude, Hospice, Nursing students, Spirituality, Terminal care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Sim (Shinsung University)

Tel: +82-41-350-1343 email: smk931526@naver.com

Received May 1, 2017

Revised (1st June 7, 2017, 2nd July 6,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 말고도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통을 피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주변과 상황을 자각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완결됐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른 사람들은 차마 꺼내기 어려운 대화를 기꺼이 나누 줄 의사와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1]. 임종환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간호를 제공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존재와 생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유하여야 한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태도와 신념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놓인 대상자에게 더욱 민감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말기 간호에서 간호제공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신념은 중요하다[2]. Kim 등[3]은 간호사가 자신의 유한성을 수용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말기 간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임종간호에 대한 철학과 태도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개인의 부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임종간호를 어려워하고 있다[4]. 또한 이런 현상은 간호교육이 임종과 죽음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되며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 발달, 상실, 사망 등과 같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임종관련 간호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제기한다[3]. 임종간호에 대한 철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는 임종간호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어[4] 체계적인 임종간호교육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임종간호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성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추구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되어 영성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여 영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5]. 영성을 통합적 차원에서 정의하는 경우는 영성의 범주 안에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교적 영성과 자아 실현 및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실존적 영성을 포괄하고 있다[6]. 영적 안녕은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삶의 의미나 목적에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 등이 충족되어질 때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런 영적 안녕을 추구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영적 요구에 관심을 갖고 영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7]. 특히 임종간호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의 신체 뿐 아니라 영적 간호도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영적간호수행은 간호사의 영적상태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 Jo 등[9]은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영성을 들고 있다. Jo[10]는 영성이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은 아니었으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생의 의미란 철학적으로는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11]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 있고 의미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12]. Simmons[13]는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은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가치 판단하는 본인의 능력에 달린 문제라고 하였다. 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종종 외부세계의 사건이나 체험에 의해 환기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패와 불운, 번민과 고통, 병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14]. 생의 의미는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실현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11]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15].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내적으로 성장하여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이 의미있게 살았다고 믿으며 죽음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간호사는 출생과 삶과 죽음이 라는 인생주기를 이해하고 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하면서도 거

룩한 존재이기 때문에[15]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을 정리하고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간호이다[16]. Kim[17]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영적안녕과 호스피스 인식[16], 간호사의 호스피스인식과 임종간호태도[17], 간호사의 영성과 호스피스간호수행[18], 영적안녕과 생의 의미[8]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영성[18], 죽음에 대한 인식[19], 죽음에 대한 불안[20], 호스피스완화의료인식[17] 등을 들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제공자의 영적 상태와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 등의 전문적인 자질이 준비된 상태에서 임종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임종 환자와 가족을 간호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 인식과 임종간호태도를 확인해보므로써 간호대학생이 임종환자와 관련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과 임종간호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 정도가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대상 및 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과 임종간호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대상자는 P시와 H군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편의 표집 하여 이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3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G power 3.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일반적 변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를 포함하여 총 예측변수 5개로 산정 시 한 집단의 표본 수는 138명 이었다. 3학년과 4학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총 276명이 요구되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학년별 80명 이상, 기관별 160명 씩 총 3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3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1.3 연구도구

1) 영성

영성이란 수직적 차원에서는 신에 대한 관계를 인식하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삶의 의미 혹은 목적을 인식하거나 자신이 삶에 대해 만족하는 개인적 성향으로 종교적 요소와 실존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23]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Paloutzian과 Ellison[23]이 개발하고 Park[2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종교적 영성 10문항과 실존적 영성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긍정형 문항 12문항, 부정형 문항 8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2) 생의 의미

생의 의미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 혹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며 [12] 본 연구에서는 Choi 등[14]에 의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6문항의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범위는 최소 46점에서 최대 18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총 8개 요인으로 ‘자기유한성의 인식’, ‘소망’, ‘목표추구’, ‘사랑경험’, ‘자기초월’, ‘관계 체험’, ‘자기만족’, ‘헌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3)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태도는 임종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간호를 제공하는 완화와 지지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 태도를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Frommelt[21]가 개발한 임종간호태도척도(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Cho와 Kim[22]이 번역하여 간호대학생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의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범위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15문항은 긍정문항, 15문항은 부정적 태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정문에 해당되는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Cho와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 Kim 등[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4)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는 살 가망성이 없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돌봄을 말하며 호스피스 인식이란 호스피스의 정의, 대상,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를 말한다[25].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인식 도구는 Kim[26]이 개발한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 도구를 Kim 등[2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 Differences of Terminal Care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 (N=308)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or M±S.D | Terminal Care Attitude | | |
|---|-----------------------------|---------------|------------------------|-------------|-------------|
| | | | M±S.D | t (p) | |
| Gender | Male | 16(5.2) | 89.31± 8.08 | 0.43(.669) | |
| | Female | 292(94.8) | 88.36± 8.69 | | |
| Age(yr) | Mean | 22.5± 2.57 | | 1.28(.201) | |
| | 19-22 | 224(72.4) | 88.81 ± 8.62 | | |
| | 23-35 | 84(27.6) | 87.38 ± 8.73 | | |
| Grade | 3rd | 175(56.8) | 87.9 ± 8.88 | 1.42(.156) | |
| | 4th | 133(43.2) | 89.51± 7.99 | | |
| Religion | Have | 140(45.5) | 89.26± 7.46 | 0.95(.353) | |
| | Don't have | 168(54.5) | 88.23± 6.58 | | |
| Curriculum courses about hospice | Yes | 73(23.7) | 90.24±10.26 | 1.42(.035) | |
| | No | 235(76.3) | 87.78± 7.99 | | |
| Where to listen about hospice | Books or curriculum courses | Yes | 184(54.7) | 89.50± 8.83 | 2.51(.013) |
| | | No | 124(45.3) | 86.95± 8.04 | |
| | Media | Yes | 83(26.2) | 89.17± 9.54 | 0.80(.428) |
| | | No | 225(73.8) | 88.28± 8.23 | |
| | Hospice practice | Yes | 5(1.6) | 89.60± 9.12 | 0.31(.907) |
| | | No | 303(98.4) | 88.38± 8.66 | |
| | Medical staff in hospital | Yes | 30(8.8) | 88.73± 7.92 | 0.14(.892) |
| | | No | 278(91.2) | 88.50± 8.70 | |
| | Never heard of hospice | Yes | 17(5.3) | 83.64± 9.04 | -2.43(.016) |
| | | No | 291(94.7) | 88.82± 8.51 | |
| Practice experience about hospice care | Yes | 5(1.6) | 89.60± 9.12 | 0.31(.907) | |
| | No | 299(98.4) | 88.38± 8.66 | | |
| Experience with death family or relatives | Yes | 106(34.4) | 89.61± 7.38 | 1.18(.241) | |
| | No | 202(65.6) | 88.27± 6.89 | | |
| Intention to accept hospice care of death family or I | Yes | 280(90.9) | 88.70± 8.57 | 1.88(.062) | |
| | No | 28(9.1) | 85.32± 9.25 | | |

는 ‘호스피스’의 정의와 철학, ‘호스피스 대상자’, ‘호스피스의 서비스 내용’, ‘호스피스의 윤리와 심리’,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2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Kim 등[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2.1.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였으며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자료수집 시작 전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PO1-201704-21-004). 각 대학의 연구보조자가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구두로 동의한 사람에게 연구배경과 목적, 자료수집방법, 철회에 관한 사항,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서면동의서는 연구는 자의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지며 연구 참여 도중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보장 및 연구내용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한 대상자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2.1.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인식과 임종간호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는 t-test와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임종간호태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으로 파악하였으며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5세, 3학년이 175명(56.8%), 4학년이 133명(43.2%)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140명(45.5%), 종교가 없는 학생이 168명(54.5%)이었다. 호

스피스에 관한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이 303명(98.4%)이었으며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 출처는 ‘책 또는 교과과정의 학교에서’가 186명(54.7%)으로 가장 많았다. 가까운 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202명(65.6%)으로 있는 경우(34.4%)보다 많았다. ‘가족이나 나의 죽음 시 호스피스 간호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경우가 280명(90.9%)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는 호스피스 교육과정 유무($t=1.42, p=.035$), 호스피스에 대해 들은 근원에서 ‘책 또는 교육과정’($t=2.51, p=.013$), ‘호스피스에 대해 들은 경험유무’($t=-2.43,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인식과 임종간호태도

영성은 총점 51.91점(± 9.95), 4점 만점에 2.60점을 보였고 생의 의미는 총점 138.69점(± 16.18), 4점 만점에 3.02점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인식은 총점 58.77점(± 7.50), 4점 만점에 2.94점, 임종간호태도는 총점 88.41점(± 8.66), 4점 만점에 2.95점이었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Variables (N =308)

| Variables | M \pm SD | Range |
|--------------------------|--------------------|--------|
| Spirituality(total) | 51.91 \pm 9.95 | 28-80 |
| Religious spirituality | 22.60 \pm 7.63 | 10-40 |
| Existential spirituality | 29.29 \pm 4.58 | 18-40 |
| Meaning of life | 138.69 \pm 16.18 | 99-183 |
| Perception of hospice | 58.77 \pm 7.50 | 33-78 |
| Terminal care attitude | 88.41 \pm 8.66 | 70-139 |

3.3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인식과 임종간호태도 간의 상관관계

생의 의미와 임종간호태도($r=.30, p<.001$), 호스피스 인식과 임종간호태도($r=.30, p<.001$)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인식($r=.25, p<.001$), 영성과 생의 의미($r=.53, p<.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08)

| Variables | Spirituality $r(p)$ | Meaning of Life $r(p)$ | Perception of hospice $r(p)$ |
|------------------------|------------------------|---------------------------|---------------------------------|
| Meaning of life | .53(<.001) | | |
| Perception of hospice | .07(=.215) | .25(<.001) | |
| Terminal care attitude | .06(=.290) | .30(<.001) | .30(<.001) |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redictive Factors of Terminal Care Attitudes

| Variable | B | SE | β | t | p | Multicollinearity | |
|-----------------------|------|------|---------|------|-------|-------------------|------|
| | | | | | | Tolerance | VIF |
| Perception of hospice | 0.49 | 0.09 | 0.40 | 5.71 | <.001 | 0.89 | 1.14 |
| Meaning of life | 0.12 | 0.04 | 0.27 | 3.34 | <.001 | 0.64 | 1.56 |

$R^2=.294$, Adj. $R^2=.277$, $F=17.157$, $p<.001$

3.4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예측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증하였다.

공선성의 진단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0이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643~ 0.881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41~1.555로 10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7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758~2.679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생의 의미, 영성, 호스피스인식, 호스피스교육과정 유무(더미변수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임종간호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beta=0.399$,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22.7%였다.

그 다음이 생의 의미 요인으로 설명력은 5.0%로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27.7%였다. 영성과 호스피스교육과정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4. 논의

영성은 평균평점 2.60(척도범위 1~4)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16]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2.63과 유사하였으나 기독교종합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8]의 연구에서는 영성이 평균평점 3.24(척도범위 1~4)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일반대학의 간호대학생과 기독교대학교의 간호대학생들 간에 영성의 차이를 보였다. 영성은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종교에 따른 영성점수의 차이를 추가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학생의 영성 점수는 2.81점, 종교가 없는 학생은 2.43점으로 종교에 따른 영성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t=5.17$, $p<.001$) 종교가 없는 학생이 54.5%인 것이 영성점수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생의 의미 점수는 138.79(± 16.19)점, 평균평점 3.02점(척도범위 1~4)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3]의 143.39(± 12.03)점, 평균평점 3.11점보다 낮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7점 척도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29]의 평균평점 4.82점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도구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의 인식 점수는 총점 58.77, 평균평점 2.94점(척도범위 1~4)으로 나타났다. 이는 Jo 등 [9]의 연구에서 3.32점보다 낮았고 Kim 등[27]의 연구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평점 3.06점보다 낮았다. 이는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76.3%,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이 98.4%인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호스피스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져 호스피스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호스피스 인식 항목 중 ‘호스피스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이 가능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이다’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스피스는 대상자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다’가 두 번째로 높게 인식하는 항목이었다. Han과 Lee[4]의 연구에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덜어주며 보다 안위적인 전인간호를 도모한다’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으나 개념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스피스 인식 항목 중 ‘말기환자에게 중환자실이나 처치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가 가장 낮게 인식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말기환자에게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은 의미 없는 일이다’의 항목으로 나타나 Han과 Lee[4], Lee 등[1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간호학생과 간호사가 생명연장만을 위한 연명치료의 무의미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품위 있고 존엄 있는 죽음을 맞이 못하고 있는 현실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부족함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고 죽어가는 과정조차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Lee 등[30]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는데 이는 의학이 말기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질병을 완치하거나 제거하지 못할지라도 임종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선택한 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료인들 대부분이 생명연장시술을 의미 있는 일로 여기는 데 근거한다고 보여 진다고 하였다[31]. 호스피스 의의인 불필요한 생명연장을 지양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고 죽어가는 과정조차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는 존엄사와 사전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호스피스교육의 효과를 보여준 연구로 Kim 등[27]은 호스피스 교육에 참여한 그룹은 호스피스 교육 후 무의미한 생명연장시술이 환자의 고통과 죽음만 연장시키며 가족들에게도 고통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일로서 비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배움으로써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호스피스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임종간호태도 점수는 2.95점(1-4점)으로 Jo[10]의 3.0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종간호태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압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가 가장 낮았으며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낄 지도 모른다’가 다음 순으로 Cho와 Kim[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Cho와 Kim[2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종간호에 대해 공포와 불안감, 무력감을 느끼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임종환자간호 시 심리적 영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호스피스완화간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감정에 직면할 수 있어야 임종

환자를 돌볼 수 있으나[32] 임종간호에 대한 철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죽어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졸업하는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임종간호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4]. 임종간호태도 및 호스피스 인식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본 연구에서도 죽음을 말하기 힘들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등의 문항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간호교육과정에 임종간호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에서 호스피스 교육과정 유무($t=1.42, p=.035$), 호스피스에 대하여 들은 근원 중 ‘책이나 교육과정’($t=2.51, p=.013$), ‘호스피스에 대해 들은 경험 유무’($t=-2.43, p=.016$)에 따라 임종간호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Lee 등[30]의 연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임종간호태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태도를 증진하기 위해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호스피스의 필요성과 인식 등을 포함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며 간호교육과정에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생의 의미($p<.000$), 호스피스인식($p<.000$)이 임종간호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인식($p<.001$), 영성과 생의 의미($p<.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영성과 호스피스 인식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Lee 등[1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영적안녕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Jo[10]의 연구에서 영성과 임종간호태도 간에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추후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간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 인식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0$) Kim 등[27]의 연구와 일치하였는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도 높아지며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삶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27]. 즉,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면서 삶의 의미 또한 논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호스피스완화간호의 핵심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기간 동안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15] 호스피스인식과 생의 의미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호스피스·완화간호교육 과정 안에서 다루어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건전한 태도 형성은 단순히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3]. 영성과 생의 의미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영성은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신념과 믿음 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 신념 체계들은 삶의 경험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까지 포함하여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서[34]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은 호스피스인식($\beta=0.40, p<.001$)과 생의 의미($\beta=0.27, p<.001$)로 호스피스인식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인식이 임종간호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Kim[17]의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Kim[17]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호스피스완화간호 인식이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가까운 지인의 임종경험과 호스피스완화간호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이 두 변수의 설명력은 32.5%($F=15.921, p<.001$)라고 하였다. Kim[32]은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완화간호지식과 임종간호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호스피스인식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호스피스완화간호에서 다루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인간생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임종환자에 대한 건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성이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이 되지 않았던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10]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영성이 임종간호수행의 주요 영향요인이었던 Seo와 Sung[1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영성은 종교적,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나 영성 중에서 신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수직적 차원은 종교가 있는 경우에 더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 본 연구 대상자의 54.5%가 무교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의 영성 점수는 2.81점, 무교인 학생은 2.43점으로 종교에 따른 영성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17, p<.001$). Seo와 Sung[18]은 영성과 호스피스간호수행 간에는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호스피스간호수행의 영향요인은 영성, 임종경험유무, 노인요양시설 실무기간, 호스피스 교육 여부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43% 설명력을 가지며 이 중 영성은 32%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간호사들이 노인들의 다양한 삶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심사숙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영성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되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임종 직전의 환자를 간호할 경험을 가지지 못하거나 임종경험이 없고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영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가지지 못하여 영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간호대학생이었으므로 영성이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의 의미는 삶과 죽음, 고통 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를 폭넓게 감싸 안는 포괄적인 것으로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의연하고 비굴하지 않게 시련을 이겨내고 어떤 태도로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영화나 이야기에서 결말이 중요하듯 삶의 최종적인 의미는 임종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였다[11]. 본 연구에서 생의 의미가 임종간호태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생의 의미를 임종간호태도의 예측요인으로 제시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이 완성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생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1]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지닌 가치와 지내온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15]을 확인시켜준 결과라 하겠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에서 사랑과 보살핌도 필요하지만 삶과 죽음의 실제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의 위안을 줄 수 있게 된다[15]. 따라서 임종간호교육과정에 이런 생의 의미를 포함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며 멘토링, 상담, 진로지도프로그램 등 여러 활동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im 등 [3]은 의미요법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 간호교육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수준 향상과 함께 임종간호태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Kim 등 [34]은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현재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죽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회고하고 삶과 죽음의 철학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영성이 증가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간호교육과정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이론과 실습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종 환자 돌봄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생의 의미를 포함한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 및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영성과 생의 의미 및 호스피스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임종간호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인식이 임종간호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생의 의미와 호스피스인식, 영성과 생의 의미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호스피스인식과 생의 의미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7.7%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생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호스피스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이런 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임종간호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효과를 분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나 호스피스간호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과 채택한 학교의 학생에 대해 임종간호태도와 관련 변수를 비교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간호학 교육과정 속에 의미요법과 호스피스인식을 포함한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Atul G, *Being mortal*, H. J. Kim, Translator Seoul: Bookie Publishing House, pp. 23-287, 2015.
- [2] S. N. Kim, S. O. Choi, "Nurses'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01-110,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101>
- [3] S. N. Kim, H. J. Kim, S. O. Choi,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454-463,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454>
- [4] J. Y. Han, N. Y. Le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Asian Oncology Nursing*, vol. 9, no. 2, pp. 95-103, 2009.
- [5] Y. J. Cho, "The influence of elderly's spirituality and gerotranscend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Ph. D. dissertation,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5.
- [6] E, R. Canda, "Conceptualizing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insights from diverse perspective", *Social Thought*, vol. 14, no. 1, pp. 30-46, 1988. DOI: <https://doi.org/10.1080/15426432.1988.10383616>
- [7] Y. S. Kwon, C. N. Kim, "A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4, no. 1, pp. 132-143, 2003.
- [8] M. O. Yoon, "The effect of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death anxiety, spiritual well-being, and meaning of life in adul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0, no. 4, pp. 513-521, 2009.
- [9] K. H. Jo, A. R. Park, J. J. Lee, S. J. Choi, "The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hospice perception and spirituality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8, no. 2, pp. 103-116, 2015.
- [10] M. J. Jo,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8, no. 4, pp. 306-312, 2015. DOI: <http://dx.doi.org/10.14475/kjhpc.2015.18.4.306>
- [11] V.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S. H. Lee, translator, pp. 140-228, Seoul: Chung-A Publishing Co, 2005.
- [12] S. O. Chang, P. M. Burbank, "Meaning in lif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0, no. 2, pp. 259-271, 2000. DOI: <https://doi.org/10.4040/jkan.2000.30.2.259>
- [13] D. Simmons, "Purpose in life and the three aspects of valu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6, pp. 921-922, 1980. DOI: [https://doi.org/10.1002/1097-4679\(198010\)36:4<921::AID-JCLP2270360414>3.0.CO;2-N](https://doi.org/10.1002/1097-4679(198010)36:4<921::AID-JCLP2270360414>3.0.CO;2-N)
- [14] S. O. Choi, S. N. Kim, K. I. Shin, J. J. Le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5, pp. 931-942, 2005
- [15] S. O. Choi, S. N. Kim, "Inquisition of meaning in life for logotherapy application in hospice nurs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9, no. 2, pp. 329-339, 2003.

- [16] Y. E. Lee, E. A. Choi, K. E. Lee,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 death and perception of hospice care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8, no. 4, pp. 294-305, 2015.
DOI: <http://dx.doi.org/10.14475/kjhpc.2015.18.4.294>
- [17] G. H. Kim, "The perceptions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erminal care attitudes of nurses at long-term care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2016.
- [18] Y. S. Seo, K. W. Sung, "Influence of nurses' spirituality on hospice nursing interven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4, no. 1, pp. 12-20, 2012.
- [19] E. M. Hong, M. D. Jun, E. S. Park, E. J. Ryu, "Death perceptions,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3, no. 4, pp. 265-272, 2013.
- [20] S. A. Yang, "Convergenc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nd-of-life care attitud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141-154, 2016.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6.7.4.141>
- [21] K. H. Formmelt,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on nurse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erminally ill person and their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Care*, vol. 8, no. 5, pp. 37-43, 1991.
DOI: <https://doi.org/10.1177/104990919100800509>
- [22] H. J. Cho, E. S. Kim, "The effec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8, no. 2, pp. 163-172, 2005.
- [23] R. F. Paloutzian,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L. A. Peplau & D. Perlman, 1982.
- [24] J. S. Park, "A correlation study among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oreaa University, 2005.
- [25] Y. J. Roh, *Hospice & death*. Seoul, Hyunmoonsa, 1994.
- [26] J. H. Kim, "A study of attitude about death and hospice of medical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1990.
- [27] M. S. Kim, C. S. Lee, H. C. Kim, "The effect of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s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Asian Oncology Nursing*, vol. 7, no. 2, pp. 131-139, 2007.
- [28] Y. E. Lee, H. S. Park, S. K. S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Faith & Scholarship*, vol. 12, pp. 195-232, 2007.
- [29] S. M. Kim, S. O. Kim, "Factors influencing meaning in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1 pp. 57-65, 201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1.57>
- [30] Y. E. Lee, E. J. Choi, J. S. Park, S. H. Shin, "Perception and knowledge of hospice care and attitude toward death held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the same regio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6, no. 4, pp. 242-252, 2013.
DOI: <http://dx.doi.org/10.14475/kjhpc.2013.16.4.242>
- [31] M. S. Kim, "Comparison on the perception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32] S. E. Kim, "Knowledge of hospice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2014.
- [33] J. Swinton, "Spiritual care: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care", *Health Mission*, vol. 17, no. 1, pp. 5-23, 2009.
- [34] B. R. Kim, C. U. Oh, H. K. Kang,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pain of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156-16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9.156>

심 미 경(Mi-Kyung Sim)

[정회원]



- 1986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2월 ~ 현재 : 신성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소아암, 호스피스

박 정 모(Jeong-Mo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1999년 1월 : RWTH in Aachen (독일 Dr. Phil)
- 2000년 3월 ~ 현재 : 경인여자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노인보건, 지역사회보건사업